

“전기차 시장 선도”…기아, 연식 변경·라인업 확장

기아가 주요 전기차 모델의 고성능 GT 라인업을 대거 도입하고, 안전과 편의성을 한층 강화한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테슬라, 중국 BYD를 비롯한 수입 브랜드의 성장세로 경쟁이 심해지면서 상품성 개선으로 시장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 EV3·EV4 연식변경 모델
기아는 EV3·EV4의 GT 및 롱레인지 4WD 모델과 함께 연식변경 모델 ‘The 2026 EV3’와 ‘The 2026 EV4’를 출시했다.

2026 EV3·EV4는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전 및 편의 사양을 강화하며 완성도 높은 상품성을 구현하면서도 판매 가격을 동결했다.

또 2026 EV3·EV4의 전 트림에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는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와 가속 제한 보조(GT 모델 미적용)를 기본 적용했다.

EV3는 전 트림에 100W C타입 USB 단자를 전 트림 기본 적용하고, 어스 트림 이상에 스마트폰 듀얼 무선 충전, 간편 조작으로 1열 시트와 조명 밝기를 전환하는 ‘엔테리아 모드’를 기본 탑재했으며, 주차 중 최대 4일까지 녹화 가능한 ‘빌트인 캠 2 플러스’를 신규 선택사양으로 운영한다.

판매 가격은 스탠다드 에어 3995만원, 어스 4390만원, GT 라인 4475만원, 롱레인지 에어 4415만원, 어스 4810만원, GT 라인 4895만원이다.

EV4는 전 트림에 스마트폰 듀얼 무선 충전을 새롭게 적용하고 100W C타입 USB 단자의 상품성을 개선했다. 판매 가격은 스탠다드 에어 4042만원, 어

기아, EV3·4·5 GT, EV3·4·9 모델 출시…상품성 강화 고성능 GT·4WD 추가…편의 사양 강화·가격 합리화도



기아가 주요 전기차 모델의 고성능 GT 라인업을 대거 도입하고, 안전과 편의성을 한층 강화한 연식변경 모델을 출시했다. 사진은 EV4 GT·EV5 GT·EV3 GT 외장.

스 4501만원, GT 라인 4611만원, 롱레인지 에어 4462만원, 어스 4921만원, GT 라인 5031만원이다.

△ 모델 추가로 선택 폭 확대

기아는 소형 전동화 SUV ‘EV3’, 준중형 전동화 세단 ‘EV4’, 준중형 전동화 SUV ‘EV5’에 고성능 GT 라인업과 롱레인지 4WD(사륜구동) 모델을 추가했다.

EV3 GT, EV4 GT, EV5 GT에 듀얼 모터 시스템을 탑재해 강력한 주행 성능을 구현하고, GT 전용

내·외장 디자인과 펀드라이빙 특화 사양 적용으로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선사한다.

기아는 고성능 GT 라인업의 외장에 GT 전용 20인치 휠 및 퍼포먼스 썸머 타이어, 네온 색상 브레이크 캘리퍼, 전용 프론트·리어 범퍼, 전용 엠블럼을 장착해 GT만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강조했다.

실내에는 스웨이드 소재에 네온 색상 포인트를 더한 ‘GT 전용 스포츠 시트(1열)’, 전용 3스포크 스티어링 휠, 전용 클러스터 GUI, 전용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등을 적용했다.

또 고성능 GT 라인업에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가상 변속 시스템, 다이내믹 토크 벡터링 제어를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EV5 GT에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등 고급 사양을 기본 적용했다.

△ EV9 연식변경 모델 출시

대형 전동화 SUV ‘EV9’의 연식변경 모델 ‘The 2026 EV9’을 출시하며, 편의 사양을 강화하고 내

장재를 개선해 플러그십 전기차에 걸맞은 고급감을 확보했다.

또 스티어링 휠에 위치한 조작 버튼과 도어 트림 가니쉬 등을 다크 그레이 글로스로 마감하고, 에어 이상 트림에는 크래쉬패드, 도어 램페스트 등에 스웨이드 감싸기를 적용해 실내 고급감을 한층 강화했다.

신규 트림 ‘라이트’는 대형 전동화 SUV를 원하는 고객이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 엔트리 트림으로, 기존 에어 트림 대비 합리적인 사양 조정으로 가격 접근성을 높였다.

이로써 2026 EV9은 실용성과 경제성을 갖춘 스탠다드 및 라이트 트림부터 편안한

주행감과 우수한 주행 가능

거리를 갖춘 롱레인

지, 스포티한 디자

인이 돋보이는

GT 라인, 강력

한 성능을 갖

춘 GT에 이르

기까지 고객

에게 더욱 다

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EV9의 판매가격

은 스탠다드 라이트

6197만원, 에어 6412만원,

어스 6891만원, 롱레인지 라이

트 6642만원, 에어 6857만원, 어스 7336만원이며,

GT 라인업은 7917만원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The 2026 EV9 내장

현대차그룹, 협력사 납품대금 2조원 조기 지급

설 명절 자금 부담 완화 위해 기존보다 12일 앞당겨 임직원들 취약계층 ‘온정의 손길’…봉사활동에 나서

현대차그룹은 설 연휴 전 협력사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납품대금 2조768억원을 기존 지급일보다 최대 12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은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현대오트모터 등 주요 그룹사가 시행하며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거래하는 6000여개 협력사가 대상이다.

특히 설 명절 기간 직원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이 일시적으로 집중됨에 따라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도 2·3차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권고해 선순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3차 협력사까지 재정 관리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 조기 지급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현대차그룹은 매년 설·추석 명절 전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을 선지급해왔으며,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각 2조446억원, 2조228억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 소속 임직원들은 전국 각지

에 있는 사업장별로 주변 취약 계층 등 이웃을 위해 필요 물품 전달 및 배식 봉사 등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온정의 손길을 전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임직원은 결연기관 및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기부금과 필요 물품 등을 전달하고, 복지시설 내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또 지역 전통시장 상품권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현대제철·현대건설·현대로템·현대트랜시스는 저소득층 아동 및 어르신 등 소외 이웃들을 위해 말반찬 제공을 비롯해 식사 대접, 배식 봉사 및 무료 급식소 식자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친다.

현대위아는 지역 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샌드 쿠키키를 만들어 판매하고, 수익 전액을 지역 산물 피해지역 산림 복원 사업에 기부할 방침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금호타이어, 타이어 구독 서비스 ‘포로로로’ 출시

장착·점검·보상까지 책임지는 올인원 서비스 런칭

금호타이어는 렌탈 플랫폼 기업 비에스온과 함께 운영해 온 기존 타이어 방문장착 서비스 ‘포로로로’를 업그레이드한 구독 서비스 ‘타이어 구독’을 올해부터 구독형 서비스로 새롭게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포로로로 구독’ 서비스는 고객들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타이어 전문 매장에서 타이어를 장착하고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해 정기적으로 타이어 점검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타이어 서비스이다.

가입 고객은 소형부터 대형, SUV 차종까지 모든 차종의 타이어 4본을 월 최대 3800원에 렌탈할 수 있다.

렌탈 기간은 12개월·24개월·36개월 중에서 운전 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 기간, 구매수량, 타이어 규격, 제휴카드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월 이용료는 달라질 수 있다.

금호타이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타이어 위치 교환, 휠 얼라인먼트 등 다양한 프리미엄



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타이어가 손상될 경우 최대 2분까지 무상 교체해 주는 금호타이어의 차별화된 보상 프로그램 ‘금호 스마트초이스’도 이용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김성상무는 “타이어는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금호타이어는 고객들이 번거로운 없이 타이어를 교체하고 점검받을 수 있도록 구독 서비스에 다양한 프리미엄 혜택을 담았다.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이번 구독 서비스 개편을 시작으로 고객 맞춤형 타이어 관리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편의성을 강화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다양한 구독형 상품을 선보여 변화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삼성 OLED TV 전 라인업, 엔비디아 ‘지싱크’ 인증

그래픽카드·프레임 속도 동기화

게이밍 성능·차원 다른 화질 제공

삼성전자는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 인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거나 끊겨 보이는 현상을 최소화한다.

인증 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OLED (SH95, SH90, SH85)’ TV와 ‘오디세이 G6 (G61SH, G60H)’ 게이밍 모니터다.

‘삼성 OLED’ TV는 강력한 게이밍 성능을 제공한다. 2023년 OLED TV 최초로 AMD의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 인증을 받았고, 최대 165Hz의 고주사율을 제공하는 ‘모션 액셀러레이터’ 기능도 갖췄다.

2026년형 삼성 OLED TV는 강력한 게이밍 성능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시청 경험도 제공한다.



2026년형 삼성 OLED TV 전 라인업이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을 받았다.

화면의 밝기와 색상, 명암비, 모션 처리 등 화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차세대 HDR 표준인 ‘HDR10+ 어드밴스드’가 업계 최초로 적용됐다.

또 빛 반사와 눈부심을 줄여 깊은 블랙과 선명한 색감을 구현하는 ‘글레어 프리 (Glare-Free)’ 기술도 적용돼 다양한 환경에서 생생한 게이밍 화면을 제공한다.

‘오디세이 G6’ 게이밍 모니터도 새로운 차원의 게이밍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을 두루 갖췄다. 27형 G60H 모델은 QHD (2560×1440) 해상도

에서 600Hz의 고주사율을 지원하고, 주사율 전환이 가능한 ‘듀얼 모드’를 적용하면 세계 최초 초고주사율 1040Hz까지 지원해 게임 장르별 특성에 맞춰 최적의 플레이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이상욱 부사장은 “2026년형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다양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화질을 구현한다”며 “완성도 높은 제품을 바탕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삼성전자, 밀라노서 ‘올림픽 캠페인’ 옥외광고 진행

선수들 플립7로 ‘빅토리 셀피’ 촬영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파트너인 삼성전자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옥외광고를 통해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삼성전자의 2026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패럴림픽 옥외광고는 밀라노 두오모, 산 바빌라, 카르노, 포르타 베네치아 등 밀라노 전역 랜드마크를 포함해 총 10곳에서 오는 28일까지 운영된다.

일부 옥외광고는 패럴림픽이 종료되는 3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번 옥외광고는 ‘팀 삼성 갤럭시’ 선수들이 참여해 삼성전자의 올림픽 메시지인 ‘Open always wins (열린 마음은 언제나 승리한다)’를 전한다. 삼성전자의 올림픽 캠페인 옥외광고에는 이탈리아 프리스타일 스키 대표이자 남매인 플로라 타바넬리와 미로 타바넬리 선수, 스노보드 선수 이안 마테올리, 파라 스노보드 선수 자코포 루치니가 참여했다.



삼성전자가 밀라노 두오모에서 진행 중인 올림픽 옥외광고

광고에 참여한 선수들은 올림픽 여정을 함께하는 가족이나 친구, 코치 등 소중한 이들과의 함께한 순간을 갤럭시 Z 플립7으로 촬영해 ‘빅토리 셀피’로 담아냈다.

삼성전자는 30년 가까이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서 모바일 기술을 통해 전 세계 팬들이 올림픽을 보다 가깝게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